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하 5장 14절]

나이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얼음 깨기

명절 그 이후...

교회행사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 이야기를 살짝 나누어보세요.
기쁜, 화나는, 슬픈, 즐거운 이야기를 살짝 나누어보세요.

9월

- 1일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 1일 어와나 시작
- 1,8일 이끄미 1기 교육
- 22일 진공첫 3기 시작

10월

-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경배 찬양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선교

[김민호 선교사]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베닝

- 주어진 기간 안에 권고사항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공사(특히 메인 건물의 리모델링)를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우기인데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도록.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12명의 친구들이 그곳에서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 김선교사 부부, 고아원 대표인 로베와 4명의 직원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식

한문장 큰 울림

1. 캄보디아 단기선교

9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진행됩니다.
다음덤봉센터 개원예배, 의료와 미용 사역등으로 진행됩니다.

2. 전북 시니어 선교 학교

전북 시니어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전북 시니어 선교학교입니다.
일정: 9월 30일(월)~11월23일(토) / 장소: 전주 동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예술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묻자
바호가 대답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_정현중 (열심히 중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셔느니라 (왕하7:1)

벤하닷이 아람왕이 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광석화 같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겹겹히 포위합니다. 도시는 극심한 기근에 빠집니다. 성 안의 상황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_사마리아는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의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수많은 아람 군대의 침략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 미리 알려 주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왕하7:1), 여전히 불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왕하7:2)

[왕하7:2]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2_나병환자들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 만에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너무 믿기 힘들고 아람 군대에 대한 공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성 밖에서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피해 아람 진영으로 갔다가 군대가 도망간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남겨진 물자를 숨기며 기뻐했지만, 한 나병환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성안의 비참한 상황을 알기에, 이 풍성한 물자를 혼자 차지하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급히 성으로 달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기로 합니다.

[나눔] 1. 우리 삶에서 "나병환자들"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즉,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상황은 다르나 나병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으로 급히 돌아간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책임입니다. 우리끼리만 이 좋은 복음을 즐기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전하지 않는 것의 위험입니다. 죽어 가는 자들을 살릴 구원의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하는 죄악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3_예언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왕은 나병환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의심하며 적의 계략으로 여깁니다. 정탐꾼의 보고 후에야 아람 군대의 퇴각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이 두고 간 식량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엘리사의 말을 비웃은 장관은 성문에서 밧혀 죽어, 심판의 예언도 성취됩니다. 장관의 죽음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거북하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2.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은 왕의 장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